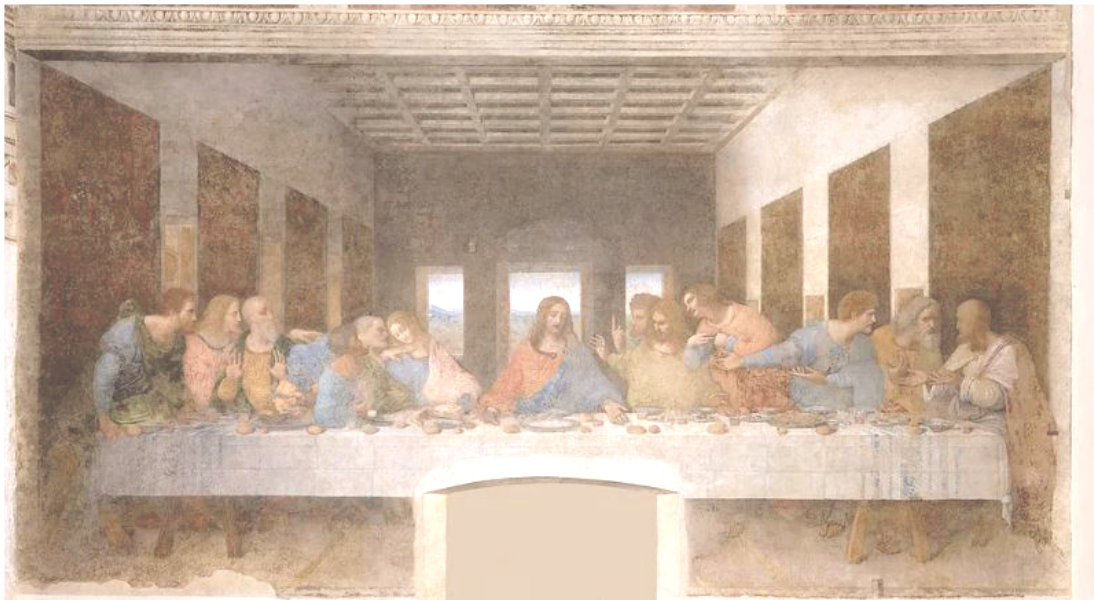


최후의 만찬

인류 역사 최고의 창의적 인물 레오나르도 다 빈치

(1452년 4월 15일~1519년)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 중 최고의 인기 작품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 모으는 초상화 ‘모나리자’를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기도 하지만 발명가이자 자연과학 해부학 기계공학 지리학 건축 군사무기 물리학 분야 등 심지어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르네상스형 만능 천재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말년에 수염이 길게 난 자화상의 선입견 때문인지 뛰어난 육상선수였고 유명한 검객이었다는 사실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 그는 또한 요리사이기도 했는데 이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식탁에 놓여질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1495-1498년 작
460cm x 880cm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두보(杜甫)와 함께 당나라 시대 위대한 시인이었던 이백(李白)도 뛰어난 검객이었다는 사실과 흡사한데 천재는 한가지 재능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 또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지상에 나온 모든 발명품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썰(?)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다빈치가 유명세를 떨치던 그 시기에는 당시 모든 발명품은 다빈치가 했을 것이란 루머까지 돌았을 지경이었다.

너무나 다방면에 왕성한 활동을 했던 탓인지 회화에 한해 실제 그의 남은 작품은 몇개가 안되고 그나마 미완성인 경우가 많다.(모나리자도 미완성으로 남아있음) 최후의 만찬은 그래도 완성도가 높았으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덕분(?)인지 운이 나쁘게도 거의 8.90%가 훼손되고 말았다. 위대한 작가의 작품을 무수히 복원하려고 애썼지만 이렇게까지 보존이 안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하기까지 하다. 게다가 무슨 유명한 성당의 제단화도 아니고 수도원 식당 벽에 인테리어 용(?)으로 한쪽 벽면을 채웠다는 것도 아이러니다.(원래는 당시 유력자의 묘소 벽면화로 의뢰를 받았다고 함) 게다가 그림 정면 식탁 하단부에는 배식구까지 ‘뽕’ 뚫어 놓고 말았다.

다빈치 사후 이 작품은 보존에 취약하여 여러 번 복원을 했으나 거의 실패하고 1978년부터 시작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복원하고 20여년만에 일반에 공개했다고 한다. 이 작품을 관람하려면 단 15 분간만 허용하고 그것도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 차이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행해진 성찬의 전례의 유무에서 갈라진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 이 중요한 성찬의 전례를 빼버린 것은 큰 실수였다. 물론 당시 성체를 이용해 치부에 전념했던 가톨릭의 부패와 전횡은 신자들의 원성을 자아내기 충분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매우 중대한 성체성사 예식을 새롭게 유지하면서 쇄신했더라면 좀 더 나은 개혁이 이루어질 뻔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후 이러한 중차대한 이벤트를 경시한 사실에 대해 후회하는 개신교 성직자들도 많다고 한다.

아무튼 이 작품은 그리스도의 성찬예식 제정 직전에 제자의 배반을 예고한 상황을 묘사하였는데 제자들의 심리적 변화까지도 표현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화가들이 시도하였지만 이 작품만큼 창의적이고 미술사에 남는 작품은 없다. 일반인들이 ‘모나리자’가 최고의 명작으로만 알고 있는 다 빈치의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만큼 중요한 작품이 없다.(다음 편으로 이어짐)

글/김웅배 안드레아

부활

제 7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2024년

05월 12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요일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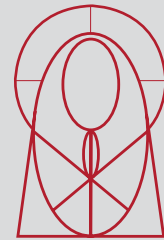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5월의 성모베스트(무명) 〉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사도행전 1,1-11

화답송 시편 47(46),2-3.6-7.8-9(© 6)



제 2독서 에페소서 1,17-23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음 마르코 16,15-20

성가 입당 245 봉헌 219, 512 성체 168, 176 파견 141

🌸 미사지향 (연미사)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 덕 - 가족
- 김문자(세실리아) - 성혜성(젼마)
- 온형렬 - 박화성(헬레나)
- 이영실 - 가족
- 김병학(바오로) - 가족

🌸 미사지향 (생미사)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 성라파엘라
- 오현주(요한) 부제님 - 요셉회, 노스/이스트 브런스윅 구역, 메타천 구역, 서경호(대건안드리아), 박안나, 이종권(베드로), 성라파엘라
- 에디슨 성당 모든 교우를 위해 - 오현주(요한)
- 박지영(카타리나) - 가족
- 이마이클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이희숙(데레사) - 전옥주(글라라)
- 문마일리(젼마) - 이정옥(지타)
- 서범석(폴) 김유진(마르셀라) - 채희백(바로오)
- 서경희(피아) - 맹순영(베로니카)
- 오은주(로사) - 이소희(사라)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5/5 주일 헌금 (152명).....\$979
- 2차 헌금.....\$310
- 교무금 합계.....\$2,110
- 최영옥(5) 김영필(5-6) 이종권(4-6) 배인경(4-6) 안청자(4)
- 이광호(5-6) 박정훈(1-5) 김진(4-6) 서영원(5-6) 허종(4)

🌸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애희(율리아나)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원할한 후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후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5월부터 사무실 근무 시간이 수-금, 오전 10:30 ~ 오후 4:30으로 변경됩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씌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깨끗이 해 주세요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 National Eucharistic Revival(성체 기도문)은 각자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차 헌금

- 5월 12일 : 유틸리티

🌸 빵과 포도주 봉헌

- 5/12 김종화, 김귀옥 • 5/19 이기순, 이막동 • 5/26 변태룡, 변인순

🌸 친교 봉사 일정

- 5/19 노스브런스윅 • 6/16 노스에디슨+메타천 • 7/21 먼로

🌸 2024 Bishop’s Annual Appeal

〈Stay with us, Lord : Renew our Hearts and Send Us on Mission〉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4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본당 목표 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5/3 까지 약정된 금액은 \$34,689.00 (목표금액의 93.70%) 입니다.

🌸 체키오 주교님께서 저희 본당에 오묘한 부제님을 공식적으로 파견하셨습니다. 아래는 체키오 주교님으로 부터의 편지내용입니다.

Dear Father Lee, It is my pleasure to inform you that I have formally assigned Deacon James Ohe to our Lady of Mercy Parish, South Bound Brook, NJ. I am confident that, under your supervision, Deacon Ohe will exercise a fruitful diaconal ministry and will support to you in your own priestly ministry among the people entrusted to your pastoral care.
-- Yours in Christ, +James F. Checchio, Bishop of Metuchen.

🌸 성모의 날 행사

- 일시/장소: 5/12 (주님승천 대축일) 미사중
- 화관 증정 / 꽃 봉헌 (단체/개인) / 성모님께 편지 봉헌

🌸 5/12 미사후 친교실에서 야고보회 주관 Monther’s Day 기념 식사/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테네시 농산물도 픽업하실수 있습니다.

🌸 이스트브런스윅 구역 모임

- 일시/장소: 5/18 토 저녁 6시 / 박정훈 베드로 형제님 댁

🌸 노스브런스윅 구역 모임

- 일시/장소: 5/19 미사후 친교실

🌸 2/4분기 전체사목회의

- 일시/장소: 5/19 미사후 친교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장소: 5/19 미사후 친교실

🌸 요셉회 모임

- 일시/장소: 5/26 미사후 친교실



🌸 제1독서: 사도행전1,1-11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본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에페소서 1,17-23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쳐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총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마르코16,15-20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성모 성월 기도 🌸

- 마리아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니다.
-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 은퇴하시는 윤석로 이나시오 부제님을 위한 기도 🌸

- 착한 목자이신 주님
- 주님께서는 원하는 이들을 부르고 파견하시어
-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날로 풍성하도록 이끄시나이다
- 하느님과 주님의 백성을 위해, 인생을 바치고 은퇴를 앞둔 윤석로 이나시오 부제님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
- 매일의 삶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셨나이다.
-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하나되신 주님을 본받아
- 우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명에 헌신하게 하시고
- 가난한 이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고
-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 끝까지 응답하여 천국이 드러나게 하셨나이다.
- ◎ 이제 은퇴하는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 남은 여생을 오롯이 하느님의 뜻에 맡기어
-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하게하소서.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교회의 수호자이시며 성직자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